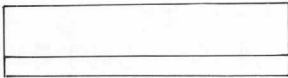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농진청, 돼지콜레라·TGE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14일 돼지 전염성위장염 발생경보와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다.

농촌진흥청

돼지 전염성위장염(TGE) 발생 경보

돼지 전염성위장염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설사병으로 모든 일령의 돼지에 발병하지만 특히, 1주령 미만의 젓먹이 새끼돼지에 발생하면 대부분 죽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지난 겨울철 돼지 전염성위장염의 확대발생이 예상되어 '95년 11월 22일에 1차로 발생주의보를 발령 양돈농가로 하여금 백신접종 및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으나 '96년 2월부터 3월 7일 현재까지 경기도 3개군과 전북 2개군, 경북 1개군, 경남 3개군 및 제주 2개군 등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13,000여두가 죽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전염성위장염 발생경보를 발령하니 양돈농가에서는 백신접종과 아울러 철저한 위생관리로 설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봄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모든 일령의 돼지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어린 새끼돼지는 회백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같은 설사를 하며 소화가 되지 않는 젓덩어리가 설사변속에 섞여 있기도 한다.

◦ 가끔 구토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어린새끼 돼지는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발병된지 4~5일경에 대부분 죽게 된다.

◦ 비육돈과 큰돼지는 대체로 설사후 약 7일내에 회복되는 경향이하나 젓먹이 어미돼지는 젓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젓먹는 새끼돼지의 발육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2. 예방대책

◦ 돼지 구입시 설사병의 발생이 없었던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만 구입한다.

◦ 돼지 및 사료운반 차량, 중개상인, 타 양돈농가 관리인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독조치 후 출입토록 한다.

◦ 감염된 돼지가 배설하는 똥에는 많은 양의 병원체가 들어 있어 중요한 전파 요인이 되므로 양돈장 내외의 철저한 소독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발생한 양돈장은 새끼돼지 돈방의 온도를 약 30℃정도 올려줌과 동시에 탈수와 세균의 복합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액제 및 광범위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 병이 발생한 양돈장의 경우 분만 예정일에 가까운 임신모돈을 철저히 소독한 후 분만실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병원체의 전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소독 등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모든 양돈장에서는 임신돈에 대하여 분만 5~6주전에 1차 예방접종하고 다시 분만 3주전에 2차 예방접종하여 젖먹이 새끼돼지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예방약은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감염증 혼합백신을 접종하여 전염성위장염은 물론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도 동시에 예방하도록 한다.

돼지 콜레라(HC) 발생주의보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만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죽는율이 매우 높아 일단 발생하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질병임에도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첫 젖먹기전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또한 2회 접종을 해야 하나 1회 접종만 하며 심지어는 아예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 실



정입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 1,800두가 발병하여 290두가 폐사되는 등 산발적으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절기를 맞아 발생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니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발병후 7~21일 사이에 대부분 죽는다.

◦ 체온이 40~41℃로 오르고 발병 후 며칠내에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서 죽는 만성의 경우도 있다.



“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만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죽는 올이 매우 높아 일단 발생하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질병임에도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첫 젓먹기전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또한 2회 접종을 해야 하나 1회 접종만 하며 심지어는 아예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 실정입니다.”



◦ 처음에 열이 나고 사료를 거의 먹지 않으며 콧물 섞인 굳은 똥을 누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

◦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 한다.

◦ 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기도 뒷다리를 잘 쓰지 못하며 비틀거리고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신경증상 등을 보인 후 혼수상태에 빠져 죽게 된다.

2. 예방대책

◦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는 시장이나 수집상으로 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 구입한 후 2~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접종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 돈사내외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출입을 제한하며 부득이 양돈장을 출입할 때는 소독한 다음 출입토록 하고 관리인도 돈사 출입시에는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고, 소독한 다음 출입토록 한다.

◦ 항시 깨끗한 물을 먹이도록 하되, 오염이 의심될 때는 락스제제 등 음수소독제를 사용한다.

◦ 모든 돼지에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한다.

3. 예방접종

◦ 가까운 양돈장에 발생되고 있을 때(긴급할 때)

-분만 후 첫젓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접종한다.

◦ 가까운 양돈장에 발생이 없을 때

-1차 : 생후 5~6주령

-2차 : 생후 8~9주령

2회 접종

※일찍 젓을 땔 때(3~4주령) 예방접종할 경우 어미돼지로 부터 받은 모체이행 항체때문에 간섭효과를 받아 예방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 번식용 어미돼지

-종부 2~4주전에(연 1회) 접종한다.

◦ 접종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의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

※돼지콜레라는 백신접종만 제때에 정확하게 해주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양돈장에서는 예방약의 보관 및 접종시기 등을 잘 지키도록 한다.